

증시침체 앞친데, IB 부진 덮쳐 증권사, 올 ‘1조 클럽’ 사라지나

〈영업이익〉

미래에셋 등 5대 대형 증권사
올 합산 영업이익 추정치 4.3조

‘실적부진’ 전년대비는 38%↑
한국투자, 그나마 1조클럽 가능성

증시 침체와 투자은행(IB) 부진이 이어지면서 올해 영업이익 1조원을 돌파하는 증권사는 단 한 곳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고금리 장기화,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등 여러 악재가 지속되면서 내년에도 증권업황 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한국금융지주·삼성증권·키움증권·NH투자증권 등 5대 대형 증권사의 올해 합산 영업이익 추정치는 4조3456억원으로, 지난해(3조1373억원)보다 38.51% 증가했다. 5대 증권사는 증시 호황에 힘입어 2021년에 각사마다 영업이익 1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냈으나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등으로 증시 침

체가 장기화되면서 지난해 영업이익 1조원을 밀돌았다.

지난해 실적 부진의 기저효과로 인해 올해 영업이익은 증가했으나 1조원을 넘어서는 증권사는 전무하거나 한국금융지주 한곳에 그칠 전망이다. 한국금융지주는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 1조157억원으로 1조 클럽에 간신히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증권은 9344억원, 키움증권은 8425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4분기 실적 결과에 따라 1조 클럽 달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의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는 7999억원, 7531억원에 그칠 전망이다. 지난해 영업이익 1조925억원을 기록해 영업이익 1조원을 넘겼던 메리츠증권도 올해 1조클럽 입성에 실패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메리츠증권의 올해 영업이익이 7299억원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올초만 해도 하반기에 증권업황 회복을 예상했으나 증권사의 3분기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올해 실적 전망도 어두워졌다. 올 상반기에 이

어 하반기에도 부동산 PF 등으로 대거 적립된 총당금이 실적 부담으로 작용한 데다가 고금리 장기화, 중동 전쟁, 주가조작 사태 등으로 증시 거래대금도 정체되면서 실적 악화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에도 비우호적인 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실적 회복이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예일 한국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향후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하는 등 금융시장 환경이 우호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 투자중개 부문의 실적도 유의미한 회복은 어려울 수 있다”며 “전반적인 투자심리 악화로 기업금융 및 투자, 부동산금융 시장이 모두 위축된 상황에서 증권사 IB 부문의 수익성과 자산건전성은 여전히 부동산금융 시장에 대한 민감도가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소형사는 국내 부동산PF에 대한 손실 부담이, 대형사의 경우에는 해외 부동산 투자에 따른 손실 부담이 손익과 재무구조에 앞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고 덧붙였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아모레퍼시픽, M&A로 실적반등 노린다

아모레퍼시픽이 오랜 부진을 털고 상승하고 있다. 1일 코스피 시장에서 아모레퍼시픽은 6.57% 오른 13만4700원에 거래를 마치며 이를 연속 상승했다. 아모레퍼시픽이 코스알엑스를 자회사로 편입시키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는 전망을 받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증권사들이 제시하는 목표주가는 18만원까지 올랐다.

아모레퍼시픽은 31일 공시를 통해 코스알엑스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잔여 지분 28만8000주를 7551억 원에 인수한다고 밝혔다.

지분 93.2% 코스알엑스 자회사 편입
주가 6.57% 올라 13만4700원 마감
증권사 목표주가 18만원으로 상향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2021년 9월 코스알엑스의 지분 38.4%를 취득했다. 당시 잔여 지분을 매수할 수 있는 매수청구권(콜옵션)을 부여받았고, 이번에 해당 콜옵션을 행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로써 아모레퍼시픽은 코스알엑스의 지분 93.2%를 보유하게 된다. 2013년 설립된 코스알엑스는 민감피부를 위한 저자극 스킨케어 브랜드로, 최근 3년연간 연평균 60% 이상의 매출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북미, 동남아, 유럽, 일본 등 140여 개 국가에 진출하며 해외 매출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코스알엑스의 인수는 아모레퍼시픽이 오랜 부진을 털어내는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증권가는 아모레퍼시픽이 코엑스알엑스를 자회사로 편입



코스알엑스 어드밴스드 스네일 라인.
(/아모레퍼시픽)

시키며 내년부터 매출이 당장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KB증권은 박신애 연구원은 “내년 5월부터 지분율이 상승하는 점을 반영해 아모레퍼시픽의 내년 지배순이익을 13%(345억원) 상향하고 2025년 지배순이익을 17%(555억원) 상향한다”라고 설명했다.

하나증권은 아모레퍼시픽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했다며 목표주가를 17만원으로 상향했다.

하나증권 박은정 연구원은 “코스알엑스는 기능성 스킨케어 등 시장성 있는 제품군으로 올해 상반기 북미와 아세안에서 각각 161%, 162%씩 성장했다”며 “향후 아모레퍼시픽의 글로벌 시장 확장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메리츠증권은 아모레퍼시픽 목표주가를 18만원까지 상향했다. 증권사가 운데서는 가장 높은 숫자다.

하누리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그러면서 “채널 조정과 지역 확장을 통해 중국 없이도 돈 버는 사업 구조가 다져졌다”며 “코스알엑스 연결 편입에 따른 실적 개선과 브랜드 포트폴리오 다각화에의 기대도 한 유효하다”고 전망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영풍제지 90% 폭락… 키움증권 손실 눈덩이

닷새째 하한가… 5720원에 마감
키움증권, 미수금 등 손실 4000억

영풍제지 지분 45% 보유 대양금융
담보권 실행, 1400만 주 처분키로

영풍제지가 닷새째 하한가 행진을 이어가면서 거래 정지 이전 대비 80%가 넘게 폭락했다. 하한가에 매도잔량이 여전히 쌓여있는 가운데 대규모 미수금을 안고 있는 키움증권의 손실 역시 이미 4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영풍제지는 전일 대비 29.99% 하락한 5720원에 거래를 마쳤다.

영풍제지는 지난달 18일 하한가를 기록한 이후 19일부터 매매 거래가 정지됐다. 이미 주가조작 혐의를 조사 중이었던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시장 조치에 나섰고, 혐의자들을 대상으로 출국금지와 압수수색 및 체포 등이 진행된 이후 26일부터 거래가 재개됐다.

거래 정지 이전 3만3900원이었던 주가

〈영풍제지 하한가 경우별 키움증권 손실액 추정〉
(단위=원·억원)

회수	영풍제지 주가	회수가능액	손실액
0	33,900	5,767	0
1	23,750	4,037	906
2	16,620	2,826	2,117
3	11,630	1,978	2,965
4	8,140	1,385	3,558
5	5,700	969	3,974

/자료=다올투자증권

는 26일부터 닷새 연속 하한가를 이어가면서 83.1%나 급락했다. 18일 하한가까지 더하면 6일 연속 하한가로 4만8400원 이던 주가는 90% 가까이 빠졌다.

문제는 하한가 행진이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미수거래에 따른 반대매매가 아직 다 소화되지 않았고, 최대 주주의 담보 물량까지 쏟아질 것으로 공시된 상태다.

이날 거래량이 다소 늘었다고 해도 50만주가 채 되지 않았지만 하한가에 쌓인 매도잔량만 무려 2878만주다.

이와 함께 영풍제지 지분 45%를 가

지고 있는 최대주주 대양금융은 지난달 30일 주식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 실행으로 영풍제지 주식을 처분한다고 공시했다. 처분 대상 주식 규모는 1479만1667주다.

전자공시에 따르면 담보권 실행으로 장중 매도한 영풍제지 주식은 지난 30일 600주, 31일 2000주다. 아직 전체 주식수의 30% 안팎의 물량이 매도 대기중이란 얘기다.

키움증권의 손실도 연일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키움증권은 지난 20일 영풍제지 하한가로 인해 약 4943억원 규모의 미수금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당시 반대매매를 통해 미수금을 회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영풍제지 주가가 하한가 행진을 지속하면서 회수 가능성은 낮아졌다.

다올투자증권이 키움증권 손실액을 추정한 결과, 영풍제지 주가가 5일 연속 하한가로 5720원까지 낮아지면 회수가능액은 969억원이며, 키움증권의 손실이 3974억원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와 각 2건의 태양광 재생에너지인증서(REC)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했다. 미래에셋증권은 탄소배출 저감을 실천해 나가며 재생에너지 금융시장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VPPA란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간 체결한 고정계약가격에서 시장전력도매가격의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 널리 쓰이는 RE100 이행 수단이다.

/안상미 기자

미래에셋증권, 태양광 가상전력 구매

피브이에너지와 구매계약 체결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26일 피브이에너지 주식회사와 3MW 규모의 태양광 가상전력구매계약(VPPA) 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미래에셋증권은 심화되는 지구온난

화 이슈에 대응하고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9월 국내 금융업 최초로 글로벌 RE100 가입을 완료했고, 2025년까지 100% 이행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썬썬에너지’ 및 브라이트에너지와 트너스 설립 합작법인인 ‘페타파워(썬

6일 블룸버그 공동개발 등 5종 지수 발표

한국거래소, 시장상황 대응 일환 공급

한국거래소가 ‘KRX Bloomberg 공동 지수’ 2종과 ‘코스피 200 위클리 커버드콜 자동화기기(ATM) 지수’ 및 ‘시장대표선물 0.5배 지수’ 2종 등 총 5종의 지수를 오는 6일에 발표한다.

거래소는 1일 최근 시장 불확실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고 투자자들의 수요도 고도화됨에 따라 각각의 시장 상황과 니즈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투자 전략지수를 개발해 시장에 공급한다고 알렸다. 특히 이번에는 글로벌 정보사업자이자 지수사업자인 블룸버그의 최신 선진 방법론을 도입해 전략지수 2종을 공동 개발했다. 위클리옵션을 활용한 커버드콜 전략 및 시장대표지수에 대한 소수점 배율 투자전략 등을 반영한 전략지수 3종도 자체 개발했다.

‘코스피 200 스마트 크루즈 지수’는 코스피 200 수익률을 추종하면서, 내재변동성 지표를 활용해 지수의 상승 예측 시에만 추종배율을 1.3배로 전환하는 지수로, 추종배율이 고정된 기존 레버리지 지수와 달리 이를 동적으로 변환해 지수 상승 시 초과수익을 추구하고, 지수 하락 시에는 음의 복리효과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반영했다. 이 지수는 2016년 8월부터 2023년 10월까지의 기간 동안 코스피 200 지수 대비 20%, 레버리지 지수 대비 35%의 초과수익



한국거래소 전경

률을 기록했다.

‘코스피 200 베어 채권 혼합지수’는 코스피 200 선물 인버스 지수와 블룸버그의 한국 단기채권 지수를 4대6 비율로 혼합한 멀티에셋 지수로, 약세장에 대응하기 위한 안정적 투자전략을 반영했다. 이 지수는 2019년 이후 지수 수익률 비교 시 해당 기간 주식시장 상승에 따라 코스피 200 지수, KTB 지수 대비 수익률은 떨어지나, 코로나 19에 따른 주가 급락, 최근의 주식시장 하락 기간 등에는 벤치마크 대비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

‘코스피 200 위클리 커버드콜 ATM 지수’는 위클리 콜옵션 매도를 통해 매주 옵션 프리미엄을 수취해 배당가능 수익을 확보하는 단기 커버드콜 전략 지수다. 월간 단위로 옵션을 매도하는 기존 지수와 달리 위클리 옵션을 월 8회 매도하면서 프리미엄 수익을 확대해 최근 증가하는 월배당 상장지수펀드(ETF) 수요에 대응하는 지수로 개발됐다.

/신하은 기자